

4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1.4.27일(화) 오후 3시~4시30분,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석 위원 : 권혁남 위원장, 박찬재 부위원장, 문해주, 정의식, 유환익, 정경모,
천경숙, 추문갑, 이현숙, 김세한 위원 등 10인

회사 참석 인원 : 보도국장, 심의실장

1. 다음 회의 일정

- 5월 일정 : 5월 25일(화) 오후 3시

■ 주요 내용

▲ 권혁남 위원장

- 모든 시간대 뉴스 진행자들이 너무 엄숙한 자세이고, 진행이 단조로운데, 보다 생동감 있고, 흥미 있는 포맷 등을 새롭게 시도했으면 한다. 진행자들이 때로는 분위기를 밝고, 유머스럽게 만든다면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뉴스 진행이 단조롭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포맷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무거운 뉴스에는 무거운 분위기나 진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머지 뉴스거리에서는 지금처럼 딱딱할 필요는 없다. CNN과 같은 뉴스 진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다 생동감 있고, 흥미를 끌 수 있는 방안들을 시도했으면 싶다.

- 4월 25일(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 "소멸위기 현실화? 벼랑 끝에 선 지방대"는 시의적절 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충실했다고 본다. 특히 대안으로서 제시한 지역의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유대학"은 상당히 좋은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이미 경남과 충북지역의 대학들에서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유대학"의 등장까지를 소개함으로써 공유대학의 성공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지방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대학-지역-정부의 공동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점 역시 좋았다고 본다.

▲ 성기홍 보도국장

뉴스를 재밌게 만들어라는 말씀은 유념하겠습니다. 일단 전달하는데 너무 가벼워 보일까봐 시도를 쉽게 하지는 못했는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지방문제는 공적인 어젠다를 다뤄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찬재 부위원장

- 4. 11 연합뉴스TV 스페셜 173회 나무 심고 벌집 짓고, '불법 투기' 천태만상 보도, LH 땅 투기로 촉발된 각종 투기 정황들이 건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투기자들이 보상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수법을 심층적인 취재로 매우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수법인 비싼 묘목을 대량으로 심거나, 실거주로 위장하기 위한 조립식 주택 '벌집' 등의 사례를 일반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영상구성을 하였으며, 우리 사회 전반으로 번진 땅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근절대책 및 제도적 안전장치의 미비점에 대한 보도와 보완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함

께 다루어 일반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투기 공화국, 영원한 투기 0번지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 투기로 손쉽게 돈을 모으고 불린 사람들이 능력 있다고 평가받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큼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묵묵히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지속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4. 16 [미니다큐] 아름다운 사람들 147회:34년간의 나눔 봉사는 내 운명 관련 보도, 34년간 어려운 이웃들께 음식 나눔과 및 방향하는 청소년에게 따뜻한 말을 나누고, 봉사로 이끌고 있는 이상기 씨에 관한 이야기로 매우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는 이때, 보여주기 위한 봉사가 아닌 진정성 있는 봉사 나눔의 실천이 동 미니다큐의 취지와 매우 잘 맞은 것 같아 좋았습니다. 특히, 방향하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가르침 보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한 밥 한끼로 위로를 하는 부분은 부모의 입장에서 큰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각종 부정적인 뉴스들 속에서 동 다큐를 통해 잠시나마 마음이 릴렉스 되며 간접적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상기 씨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을 찾아 시청자들의 공감대가 크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김가희 심의실장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스페셜팀에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뉴스뿐만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아이템을 찾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문해주 위원

- 최근 기업 활동에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 경영(Social),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등 투명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ESG를 실천하는 운동이 절실해지고 있음.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그것이 최근에 나온 개념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서는 ESG에 대한 정확한 의의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국내외적인 이슈로 등장하다 보니 기업에서는 너도나도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고, 학계나 연구계에서도 ESG 철학과 방향을 천명하는 등 ESG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음. 이러한 때에 3/30일 연합뉴스tv에서 '다시 도약하는 한국경제: 디지털 전환과 ESG'라는 주제로 2021 연합뉴스tv 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세계적인 이슈를 선도적으로 다루어 이슈화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의가 있음.

그러나 동 심포지엄은 연합뉴스tv 자체행사(축사-기조연설-토론)로서 tv에 기조연설과 토론 내용이 방영(유튜브 방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음. 전체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ESG의 의의와 국내외 동향, 방향, 핵심내용 등을 정리해서 방영(뉴스큐브나 뉴스프리즘 등)하였다면 더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함.

- 4월은 과학의 달로서 과학기술 진흥 기관이나 지자체, 학교 등에서 각종 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고, 지난 4/21은 과학의 날로서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뉴스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음. 과학 꿈나무 육성, 전 국민의 과학화,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차원에서 연합뉴스tv가 각종 행사를 취재하고,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보도할 수 있기를 희망함. *「출근길 인터뷰(4/21)」, 내일은 지구의 날 ... '10분간 불을 꺼주세요' 과학기술 범주에 속하는 내용으로서 최근 집중 보도되고 있는 뉴스는 코로나19 백

신/진단키트 개발, 후쿠시마 원자 오염수 방출 및 탄소중립선언 등 국내외적인 대형 이슈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임. 특히 코로나19와 원자력 오염수 방출 문제는 그 영역이 과학기술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 대부분이고 정치·외교적인 이슈가 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보도되고 있음. 연구개발 동향 관련 뉴스는 연구 성과나 분야별 이벤트가 있을 때 보도가 되고 있고, 과학기술을 진흥시킬 수 있는 행사나 캠페인 등 뉴스는 찾아볼 수 없어 뉴스 내용 편성 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성기홍 보도국장

유튜브로 당일 방영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의 달 관련된 것은 4월달이 가기전에 아이템을 준비하여 늦지 않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의식 위원

- 3/24. 05:00 jtbc 차이나는 클래스: 무녕왕릉에 대한 강의: 강의가 생생하고, 너무 재미있어서 화장실도 못가게 막을 정도로, 재미있고 유익한 문화 강의였다. 나온 시청자 패널도 알만한 방송인(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등 초청)들의 순간 순간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강연자의 질문등도, 상황을 이해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었다. 4/10채널 A: 05:30 채널A스페셜: 문화유산 탐방기에서 유럽 미술(조각)에 대한 설명과 연역 등에 대한 시도 역시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처럼 색다른 맛이 있었음. 연합뉴스TV 에서는 한국의 고대 문화 등을 기획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연합뉴스TV도 시도해볼만한 기획이라고 생각.

- 고용브리핑 365 은행 신용 대출 이자등에 대해, 특히 젊은 층의 대출에 대한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구체적인 수치로 (예; 1억에 대한 이자) 알려 주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좋은 것 같았다. 그리고 3월 회의시, 위원장님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기업 기상도 코너는 알기 쉽고 또박또박하게 상황을 설명하여서 평소 자주 보는 코너가 되었다.

- 3/26 05:37 AZ 합병증을 일상 생활 부작용이란 이름으로, 시간별 (24시간내, 48시간, 그 이후)로 상세히 알려줘 약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여서 매우 재미있게 보았음, 3/27 05:00 교통 방송: 지도에 차와 차뒤 색깔로 교통 상황을 표시:참신한 시도.(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차가 막히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표시)

- 3/31 03:30 산불이 났을 경우, 대피 요령: 설명과 더불어 동영상 삽화와 같이 설명하니 보다 알기 쉽게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 4/7 저녁 선거 방송 연합뉴스 TV 는 서울시 입체도에서 득표 집계와 함께 각 구별로 색깔과 함께 튀어 올라오며 표시되었고, YTN 에서는 지하철 노선을 따라, 색깔을 표시 하여서 재미있게 보았음.

- 4/16 AZ 과 안센 백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바이러스 벡터)으로 혈전증과 연계된 설명은 이해하기 쉬워서 좋았음. 4/19일 새벽 코로라19 추이 설명 시, 확대재생산 지수 설명을 이용한 전파 속도의 추이를 설명하여, 심각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됨.

▲ 성기홍 보도국장

타방송사에 좋은 프로그램을 잘 참고하여 인력이 충원되면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숙 위원

- 지난 4월7일 보궐선거 방송에서 후보들의 약력과 간단한 공약을 화면 하단에 보여주어서 다른 지역의 여러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방송 내용은 아니지만 연합뉴스TV 홈페이지를 볼 때마다 성인웹툰 광고나 여성의 몸을 소재로 만든 다이어트 광고가 눈에 띄니다.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많은 기사를 보면서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여 청소년에게 권장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접속하는 홈페이지에 성인웹툰 광고나 부적절한 표현의 의료광고 등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않은 광고는 성인인증을 한 후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개편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 지난 3월24일 보도한 [그래픽뉴스] 청소년 온라인 폭력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각종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 청소년 온라인 폭력이 증가한 이유, 코로나19 이후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미디어 접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도 있지만 그 보다는 아이들의 접하는 온라인 환경, Z세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 위험한 환경을 방치하는 플랫폼의 책임, 리터러시 교육의 부재 등의 이유로 코로나 이전에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코로나는 여러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기사 말미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아청법 개정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도하였는데 오히려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근하여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는 범죄자들과 이를 방관하는 플랫폼의 문제 등을 다루면서 아청법 개정 내용으로 이어졌다면 폭력 피해가 증가한 원인에 좀 더 다가가는 보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 4월 16일에 보도된 '아동학대의 숨겨진 피해자...피해아동의 형제자매들은' 기사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돌아보는 기사라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학대입니다. 보육시설로 보내진 아동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학대로 인해 가정과 분리된 아동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가희 심의실장

광고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보전달이 아니라 조금 더 고민해서 대안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유환익 위원

- 4월14일 우리나라 3월 일자리 현황을 정부 발표자료를 기초로 보도하였음,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31만4000명 증가했고 작년 3월이후 처음 증가세,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효과, 지난해 3월 고용충격의 기저효과가 주요인, 아쉬운 점은 고용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보도하여 현황을 정확하게 보도했으면 하는 아쉬움, 같은 기간 실업자도 3.6만명 증가, 구직단념자는 총 68.4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2만명 증가하여 구직자 양극화 현상 심화, 임시직 근로자 20.6만명, 일용직 4.1만명 증가하였고, 제조업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2.8만명) 하는 등 소위 좋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

히 어려운 상황임, 일자리는 국민 경제생활에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비록 정부 발표 자료에 기초한 스트레이트성 보도이더라도 “이러한 점은 고려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내용도 함께 보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 지난 3월 25일 뉴스13에서는 국회동향, 서울시장후보들의 동정을 보도하는 뉴스를 방송했음. 스튜디오와 현장의 전화연결 방식을 통해 국회추경소식을 전하였음. 전화연결은 생생한 느낌이 있어서 좋지만 당일 방송에서는 전화연결시 갑자기 음성 크기가 앵커 소리보다 확연히 작아 내용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현장과 스튜디오가 항상 동일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스튜디오 음성크기와 전화연결시 음성크기의 균형을 맞추는 필요가 있음

▲ 성기홍 보도국장

전체적인 타당한 지적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리포트나 대담시에 더 각별히 신경써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연결 부분은 이상없도록 기술적인 부분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모 위원

- 지난 1개월간의 “문화·연예” 분야의 기사를 검색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영화 ‘미나리’ 관련 기사가 17건을 차지하여 전체 56건 기사 중 30.3%를 차지했다. 어제(4/26) 제93회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한국배우로는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함에 따라 당분간은 관련 기사들과 인터뷰 등으로 기사량이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는 문학(신간 등) 관련 기사가 6건, 사진, 미술 등 전시분야가 5건, 뮤지컬, 공연 등 분야가 4건, 국악 2건 등 대체로 골고루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월에 비하면 담당기자가 직접 취재하여 리포팅한 기사가 17건(‘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포함)으로 대폭 증가하여 시청자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기사를 제공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좋았다고 본다. 특히 매일 오전 9시경에 방송되는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코너에 문화예술 관련 인터뷰가 3회 방송되어 해당전문가와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행사의 기획의도와 목적 등을 잘 알 수 있었다. 특히 ‘세계 책의 날’에 맞추어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을 인터뷰한 시도는 시의적절하고 유익했고, ‘가정의달’인 5월을 앞두고 어린이를 위한 창작극 공연을 준비하는 서울문화재단 관계자와의 인터뷰나, 서울문화비축기지 기획전을 소개한 인터뷰도 좋았다. 앞으로도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에서 더욱 다양한 내용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문화예술 관련 기획취재는 최지숙 기자가 홀로 모든 취재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특정 예술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다루려는 시도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이달에는 영화, 뮤지컬 등 주로 다루는 분야뿐만 아니라, 낙서(‘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다.-세상을 바꾼 낙서들’), 국악(‘희망의 불을 밝히다.-판타지로 되살아난 궁중잔치’), 사진(‘카메라에 담은 시대의 초상-문성호 작가 회고전’)등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기사가 단신으로 처리되어 깊이 있는 취재와 수준 높은 분석기사는 많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다. 또한, 리포팅하는 기사도 좀 더 깊이 있는 기획과 분석, 취재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관련 기사는 단순히 공연이나 전시 등의 내용 소개나 안내에 그치기보다는 해당 공연이나 전시가 현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함께 그 작품(공연/전시 등)의 역사적인 기원이나 사회적인 맥락 등을 함께 다룬다면 기사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기

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 4월에는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이 있었는데 선거과정이나 선거후 새로운 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후에도 후보자나 당선자들의 문화예술관련 정책에 대한 기사가 없는 것은 몹시 아쉬운 대목이다. 다음 달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기획과 취재를 통해 수준 높고 유익한 기사를 많이 보게 되기를 바라며 현장 예술가들의 목소리도 더욱 많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을 아울러 말씀드린다.

▲ 성기홍 보도국장

현장에서 문화예술활동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겠습니다. 다음 공직선거때는 문화분야정책을 제도적 비전을 비교하여 리포트나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추문갑 위원

- 4월18일 저녁 7시30분 연합뉴스TV 스페셜로 '한국기업 발등의 불 ESG에 대비하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에서는 ESG 각 분야별 개념정의에서부터, 우리기업들의 ESG 대응과 관련한 현주소를 상세히 짚어 봄으로써 한국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미래 준비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세부내용이 아주 알차고 유익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홍보입니다. 방송직전까지 연합뉴스TV 스페셜로만 표기가 되어 시청자들이 연합뉴스TV스페셜 주제가 ESG에 대한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연합뉴스TV 스페셜과 같은 정책 방송에 대하여는 방송안내에 부제목을 함께 달아 주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특별방송의 홍보확대는 물론 시청률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의견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관련 각종 이슈를 미리 알려주시면 보도국에 참고하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한 위원

- [단독] 사고 후 운전자 바뀌치기 사건...뺑소니는 제외 논란 (4월 23일), [단독]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뀌치기...9개월만에 기소 (4월 22일) 4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보도된 두건의 단독 기사는 올해 초(1월 22일) 연합뉴스TV가 단독 보도한 <[단독] 사망사고 후 운전자 바뀌치기...기약 없는 검찰 조사> 기사의 후속보도였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여주에서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40km로 달리던 외제 스포츠카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가 동승자와 자리를 바꿨지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피해자 조사조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첫 보도였다. 이후에도 취재기자(곽준영)가 사건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운전자 바뀌치기 수사 본격화...가해자 줄소환 (2월 9일)> 등 후속보도를 했고, 이번엔 검찰이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함께 기소했다는 후속보도까지 이어졌다. 나아가 마지막 보도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사건 발생 당일(2020.6.30) '119 신고 접수 내역'을 통해 2건의 신고가 모두 경찰에 의해 이뤄졌음을 확인, 가해자들이 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는커녕 신고 접수도 하지 않고 500m 이상 이동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수원지검 여주시청의 공소장을 확보해 가해자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치상, 범인도피 교사,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만 적용됐을 뿐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를 누락했음을 지적하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제기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취재를 통해 후속보도를 이어갔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다. 특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19 신고 접수 내역을 확보하고, 검찰의 공소장을 입수하는 등 정확한 보도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다.

-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일 선거방송, 개표방송을 지켜보면서 지상파 3사나 YTN 등 타 방송사와 비교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느껴졌다. 먼저 개표방송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화면의 입체성, 역동성 부족이었다. 똑같은 개표 상황을 여러 방송사가 동시에 보도하는 만큼 시청자들은 좀 더 흥미롭고 눈에 띄는 채널을 선택해 시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연합뉴스TV가 보여준 후보자 사진 옆에 단순히 득표율만 표시되는 평면적 화면이나, 후보자 얼굴을 합성한 사람이 뛰는 모습 등은 다소 식상해보였다. (몇 년 전부터 많이 눈에 익은 장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반면 타 방송사의 경우 개표방송을 하는 메인 스튜디오 자체도 특별한 배치와 구성으로 차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래 사진의 SBS처럼 가장 최신에 유행하는 가수의 노래나 춤동작(이날치 밴드의 '범내려온다')을 활용해 시청자의 눈길을 끄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 그 다음 아쉬웠던 점은 선거방송이나 개표방송에 초대된 패널(panel)이다. 일단 연합뉴스TV에는 선거 당일 보도된 프로그램 중에 선거 전문가나 여론조사 전문가를 패널로 초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일부 프로에 초대된 패널들은 여야 정당 관계자나 전직 의원 등이었다. 당일 오전 11시쯤 보도된 <뉴스포커스> 여야, 13일간의 치열했던 선거 레이스 마무리>에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이상일 전 국회의원이 출연했고, 오후 3시쯤 보도된 <정치권이 평가하는 재보궐선거 의미는?>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출연했다. 또 오후 6시쯤 보도된 <與·野 서울 중진 의원들에게 듣는 이번 선거는>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야외 스튜디오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 공동선대본부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서울시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출연해 진행자의 질문에 번갈아 답변하는 식으로 선거 결과를 예측했다. 반면 타 방송사의 경우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나 이철희 전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복수의 여론조사 전문가, 정치평론 전문가들을 아침부터 초대해 하루 종일 함께 하며 투표율에 따른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인기 있는 패널의 경우 한 방송사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타 방송사 출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뒀다가 다시 돌아와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평가> 차별화된 스튜디오 구성이나, 입체적인 개표방송 화면, 인지도 높은 패널의 초대 등은 모두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다. 지상파 3사 등에 비해 훨씬 적은 예산으로 선거방송을 만들어야 했을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지난 선거 때 보다는 더 나은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느낌을 시청자들이 가질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꼭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아이디어를 통해 타 방송사와 차별화하는 방법을 다음 선거 때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

▲ 김가희 심의실장

단독보도 기자 칭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4.7 선거방송 준비가 짧은기간에 쉽지 않습니다. 타방송사는 기간, 자금이나 규모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큰 규모로 투입됩니다. 사실 단일 드라마 같은 것을 제외하고 프로그램별로 기준하면 방송사에서 자금이나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저희 포커스는 정보를 다양하게 주기 보다는 그동안 경험치로서

개표직전 패널을 통해서 정보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패널들은 그동안 시청자들에 낯익은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신경써도록 하겠습니다.

▲ 천경숙 위원

전국 도시 차량 제한속도 하향..."보행자 안전 우선"이란 내용으로 4월 17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는 도심 속 안전속도 5030에 관하여 내용이 아주 잘 전달이 되어 좋았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재연하여 위험을 알리고 화면 하단에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어 시청자입장에서 알기 쉽게 전달해주어 좋았습니다

▲ 김가희 심의실장

- 안전수칙 5030 그래픽을 많이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이 알아야하고 알려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 권혁남 위원장

첫 화상회의인데도 잘 마쳤습니다. 다음에도 코로나가 심각하면 화상회의도 계속 하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4월 정례회의는 마치겠습니다.